



## 돼지콜레라 전국 6개도, 18개시 군, 35개 양돈장에서 발생

- 1년 3개월만에 돼지콜레라 백신 “전국 재접종”  
대일 돼지고기 수출과 국내 돼지질병 근절을 위  
해 지난 2001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던 돼지콜  
레라 예방접종 중단이 결국 1년 3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1일, 18일 전국 익산시 왕궁  
면에서 시작된 돼지콜레라가 불과 사흘만에 6개  
도, 13개 시·군, 21개 농가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  
상을 보임에 따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3월 24일 현재 돼지콜레라 발생은 6개 도 18개  
시·군, 35개 농장에서 발병되었으며, 총 살처분  
두수는 35개 농장 53,879두에 이른다.

이중 24일 현재 이미 20농가, 29,373두가 살처분  
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96페이지 참조〉

## “축분 퇴비·액비 생산·판매기록 3년간 보관해야”

- 환경부 ‘오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축의 축종 변경 및 사육두수 50% 이

상 증가시 축산폐수처리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분 퇴비·액비 생산·판매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www.me.go.kr)는 3월 12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비화 방법으로 축분노  
처리시 퇴비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허가·신고시 설치 내역을 제출토록 했다.

또 액비화방법에 의해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경  
우 확보된 초지·농경지가 다른 축산업자와 중복  
됐는지 여부 및 실제 살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  
가하였다.

또 축산폐수 분리·저장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분리·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 설치를 명할  
경우 3월의 범위내에서 설치토록 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축의 축종 변경 및  
사육두수의 50% 이상 증가시 축산폐수처리시설  
변경을 허가받도록 했다.

또 시행규칙에 따라 퇴비화방법 또는 액비화방  
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생산된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처분한 내역을 기록하여 이를  
최종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농축산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인하 추진

- 농림부, 연 금리 3~4%에서 1.5% 수준

농림부는 부채로 인한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장기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하고, 금리도 3~4%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친환경 축산농가에 보조금 지급 추진

- 농림부,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3월 13일 친환경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키로 하고,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축산분뇨 방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해 안에 법률정비 작업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축계열화사업자 확대

- 농민과 계약 체결한 계약사육 법인도 인정

사료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특례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가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위탁사육)하는 업체만을 계열화사업체로 인정해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했으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계약사육)하는 법인도 계열화사업자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기존 영세율 적용 계열화사업체의 축산업 주업비율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 한나라당, 농어업특별세 징수 5년 연장키로

한나라당은 내년 6월 30일이면 징수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특별세 시한을 5년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17일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농어업특별세는 지난 94년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돼 내년 6월30일이면 만료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세입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돼 왔다

### 지자체에서 모든 4만5천두 갱신비 지원

각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금년도 모든 갱신비용 지원 두수 및 금액을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 광역단체가 4만4,600두분의 모든 갱신비용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지원 두수를 보면 경기도는 2만8,600두, 경북 5,000두, 충북 4,000두, 강원·전북 각각 2,500두, 인천 2,000두로 두당 금액은 인천은 8만원, 나머지 지자체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 부가세 면제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의 부담이 줄어 들었다.

농림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하면서 동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하여 국세청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면제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납부하는 축산농가 및 유통업체는 2003년의 경우 연간 5억2천 7백만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

###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 등에 과태료 부과

- 농림부, 구제역 특별대책 추진실태 점검 나서  
최근 농림부는 2월 24일 수립·시달한 구제역 방역특별대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상황에 대해 1·2차로 나눠 점검에 나섰다.

3월 13일~15일(1차), 3월 20일~22일(2차) 두 차례에 나눠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축산농가의 경우 소독설비(축사면적 300㎡ 이상) 설치 여부와 소독실시기록부 또는 농협제작 '가축방역 및 사양일지' 비치 및 기록여부 등 소독실시 이행 실태와 소독약품 공급·사용 및 소독장비 확보·운영실태 등에 대해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이번 점검에서 축사면적이 300㎡ 이상인 양축농가의 경우 소독시설 미설치 농가는 200만원, 소독실시기록부 미비치 농가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부과기로 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3월부터 3개월간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

- 농림부, 공·항만 유대품 검사 강화

지난해 경기도 안성·진천 등 4개 시·군에 확산됐던 구제역의 재발을 막기 위해 3월부터 국경 검역과 국내방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제역 방역 특별대책이 추진된다.

최근 농림부는 이를 위해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3월에서 5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하 기관과 단체별로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방역조치 이행정도 따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 여행자 유대품 검역 위반자 최고 500만원 부과  
앞으로 악성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이 신고·이동제한·소독·살처분 등 방역조치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신고·이동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정도에 따라 평가금액을 40%부터 100%까지 차등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한 농가의 생계안정비용 지원대상에 살처분명령 미이행 농가, 축산업 미등록 농가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위반한 농가를 제외 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행자 휴대품 검역 위반자에 대하여 미신고·허위신고·수입금지 지역 반입 등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액을 최하 10만원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기로 했다.

## 2003 한국축산박람회 7월 30일부터 4일간 개최

- "친환경 축산업의 전개로 국민에게 건강을" 주제로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축산회관 4층 회의실에서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준비를 위한 제4차 공동주최단 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 주제로 "친환경 축산업의 전개로 국민에게 건강을"을 선정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적인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소비확대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적인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에 주제로 결정했다.

한편 2003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7월30일부터 6일까지 코엑스 1층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 "1천두 규모 양돈장이 돼지콜레라에 약했다"

- 11개 발생 농장중 8개 농장이 1천두~2천두 돼지 사육

방역상 취약지로 알려진 소규모 부업양돈장보다는 전업규모인 1,000~2,000두 의 돼지를 사육하는 양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7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노모씨 농장을 시작으로 서구와 경기 김포, 이천 등 12월 21일까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11개 양돈장중 73%에 해당하는 8개 농장의 돼지 사육규모가 1,000~2,000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방역관리 위반자 신고시 최고 100만원 포상금 지급

- 농림부, 2003년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 추진  
농림부는 지난 2월 27일 '03년도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품 공급 및 현지점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질병발생 신고자 및 이동제한명령위반, 소독명령위반 등의 방역관리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올들어 PED 발생두수 급등

올 1월 돼지유행성설사병(PED)이 지난해 12월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2003년 1월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금년 1월중 PED 발생두수는 5,514두로 지난해 12월 1,271두보다 333.9%, 전년동기 562두보다 881.1% 각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육가공시장 6,750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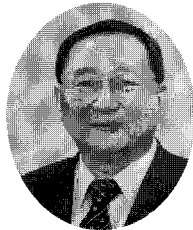
지난한 해 육가공 시장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 늘어난 6,756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임 농림부장관에 김영진 의원 임명

- 농림부 차관에는 김정호 차관보 임명



김영진 농림부장관



김정호 농림부차관

참여정부의 첫 농림부 장관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전국구)이 임명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월 27일 오후 농림부장관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김영진 신임 농림부장관은 농고 출신의 4선 의

원으로 제 13대부터 16대 국회까지 15년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만으로 활동한 원내의 대표적인 농정 전문가로 평민당 원내부 총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재해대책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3월 3일 김정호 차관보를 차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김정호 차관은 행시 17회로 75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후 28년간 농림부에서 잔뼈가 굵은 농정 전문가로 청와대 농림해양비서관, 농업정책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참사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역임했다.

한국육가공협회(회장 박재복)는 15일 국내 14개 육가공 회사의 지난해 실적을 집계한 결과, 육가공 제품이 전년도보다 9.8% 증가한 15만7,229톤이 생산돼 전년도보다 6% 늘어난 14만8,976톤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 돼지도체등급 기준 개정 검토

축산물등급관정소(소장 정동홍)는 현행 돼지도체 등급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관정소는 최근 들어 돼지고기 수요의 변화로 생산자단체 및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도체중과 등지방두께를 상향조정하여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돼지도체 등급기준에 대해 개정 검토를 제기 해옴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 축기연, 양돈기술 자기진단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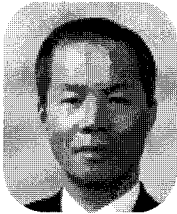
축산기술연구소는 우리 나라 양돈업 규모가 전업농 또는 기업농화 되어감에 따라 농장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농장 스스로 미흡한 사항을 파악·개선하여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돈기술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국내산 돼지고기 러시아 수출재개

농림부는 최근 러시아측과 돼지고기 수출추진과 관련 협의를 마치고, 3월 11일부터 돼지고기의 러시아 수출을 위한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러시아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작업장의 위생관리 등 관리·감독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박종명 박사 임명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지난 3월 7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박종명 박사를 임명했다.

신임 박종명원장은 1974년 충남 가축보건소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독성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독성화학과장, 대한뉴팜주식회사 중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시스템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준영)은 지난 14일 값싼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추진키로 하는 등의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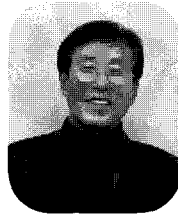
### 외국인 1년차 연수생 임금 71~80만원 '적당'

- 본회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 30.9%가 응답 1년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적정임금으로 71~8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회가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연수제도 시행에 따른 1년차 외국인 연수생의 적정 임금은 얼마로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7명의 응답

자 가운데 30.9%인 234명이 71~80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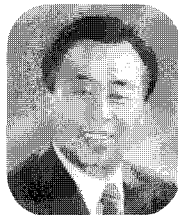
### 안수환 검역원장 직대 명예퇴임



안수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직무대리가 지난 13일 33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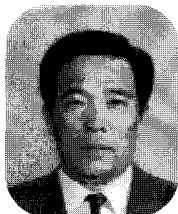
안수환 박사는 농촌진흥청 안수환 전 검역원장직대 가축위생연구소에 첫발을 내디딘후 병독과장과 바이러스과장, 해외전염병과장과 질병연구부장, 검역원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 사료협회장에 정일영씨 재선



정일영 사료협회장 한국사료협회는 지난 2월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만료된 정일영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 선임했다. 정일영 회장은 앞으로 2년간 한국사료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경북종돈 이희득사장, 돼지콜레라·구제역 방역성금 100만원 기탁



전문 종돈장인 경북종돈 이희득 사장은 지난 12일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본회 직원을 비롯, 방역 관계자들에게 써달라며 방역성금 100만원을 본회에 기탁했다. 양돈